

開化期 舊小說의 작품에 나타난 明代話本小說의 영향과 그 의미 - 〈神斷公案〉 1, 2, 3회를 중심으로 -

曾 天 富 *

摘 要

韓國開化期可以說是新舊文學的交替時期, 1906年新的文學樣式登入文壇, 文人作家雖然逐漸嘗試創作新小說, 但朝鮮時期傳承下來的舊小說作品仍然大量問世, 且還深受保守派人士及讀者的喜愛. 在這些舊小說當中, 筆者發現有多篇作品係明代話本小說的改作, 本文即以其中改寫自〈龍圖公案〉中三篇故事的〈神斷公案〉1, 2, 3回作品爲主軸, 分析開化期的文學背景, 探討在開化期的時代, 這些改寫自明代小說的作品是以何種面貌出現, 以及改寫後的特色與意義.

I. 開化期的 文學背景

韓國의 개화기는 다른 동양 諸國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물질, 과학문명에 의한 충격과 식민지 확장의 帝國主義 위협에 대처해야 했던 시기이다. 때문에 이 시기는 자연히 自己改革과 自己防禦적 성격을 띄게 되는데, 실제로 당시 보수적 儒林을 기반으로 서양에 대항하려는 自保的 의지로서 민란, 동학 의병운동등을 전개하여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禦洋, 斥邪派와 서구지향적 근대화 개혁을 단행하려던 開化派가 공존하였다. 즉, 이 시기는 자기보존과 근대화라는 양극적인 과제를 斥邪와 開化라는 상반된 시대정신 아래서 성

*作者爲本校東語系副教授

취해야 했던 민중 계몽의 시기로 파악할 수 있다¹⁾).

이러한 시대정신은 문단에서 前例없는 目的文學의 興起를 초래하여 소설에서는 이른바 신소설로 命名되는 일련의 작품들에 文明開化의 主題를 드러내었고, 歷史傳記類로 대 표되는 작품들에서는 國難 극복의 영웅 위인들을 탄생시키며 개화기 소설의 主流를 이루 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大環境 아래 창작된 소설 작품의 실체는 매우 다양하여, 신소설과 역 사전기류 외에도 「車夫誤解」, 「쇼경과 안증방이 문답」같은 對談 討論體소설과 「一捻紅」, 「神斷公案」, 「龍舍玉」같은 漢文小說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類型群은 表記 매체와 형식에 따른 일차적 분류에 의한 것인데, 실제 작품을 들여다 보면, 그 寫作의 배경에서부터 작품의 미학적 형식에 이르기까지 이질성이 매우 강하다. 所謂 신소설은 문명개화 지향적이며 상업성을 바탕으로 하여 계몽적 소설로 제 작된 것이라면, 역사전기류는 보수적이며, 목적성과 교화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식을 각성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작된 소설이고, 토론체 소설은 소설적 구성력은 약하나 계몽, 비판등 민족주의 고취에 목적을 둔 소설이며 한문소설은 그 형식상 傳記, 夢遊錄, 公案類 등으로 나뉘는데, 부분적인 변화의 징후를 보이며 시대정신이 일부 나타난다²⁾.

그리고 신소설과는 대치되는 용어로, 표기매체에 상관없이 외형상 구소설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일련의 소설이 이 시기에 여전히 발표되는 등, 개화기는 다양한 서사장르 의 공존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開化期 소설은 그 發表 紙面에 따라 신문에 연재되어 발표된 것, 잡지에 연재되 어 발표된 것, 단행본으로 간행된 全作小說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비교적 시기가 빠르고 量的으로 많은 소설은 개화기 신문에 연재되어 발표된 신문연재소설이다³⁾.

이들 신문연재소설은 대체로 그 형식과 내용상 舊小說的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이른바 신소설이라고 일컫는 작품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前者는 주로 國漢文 혼 용, 순차적 구성, 율문체 사용, 간접화법 응용, 勸善懲惡의 주제등 前代小說 樣式의 연 장선상에 놓여 있고, 後者는 純國文表記, 해부적 구성, 특히 序頭양식의 변화와 산문체 사용, 대화체의 직접화법 응용, 계급타파, 자유결혼, 여권존중, 자주독립의 주제등 前代 小說과는 현저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화기 소설에 대한 연구는 신소설에 대한 중시와 실증적 검토, 역사전기

1) 尹明求, 開化期小說의 理解 (仁荷大學校 出版部, 1986), pp 3-8.
 2) 尹明求, 앞의 책, p. 53의 開化期 小說의 類型 정리표에서 참고.
 3) 韓元永, 韓國 開化期 新聞連載小說研究 (一志社, 1990) pp. 84-92.

開化期 舊小說의 작품에 나타난 明代話本小說의 영향과 그 의미

류의 중요성 인식, 구소설적 작품에 대한 실증적 검토⁴⁾, 신소설 및 역사전기류에 대한 비교문학적 원전 검토, 신소설의 성격에 대한 재조정,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정리, 개화기 서사문학의 장르문제등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 비교문학적 연구는 주로 신소설과 역사전기류의 개별작품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과의 관련 여부를 검토하고 원전을 밝히는 작업으로, 그 결과 역사전기류는 주로 梁啓超 등 中國 晚清文學과의 관련성에서 애국, 계몽주의 문학의 영향면을 밝혔고⁵⁾, 신소설은 中國明代 단편소설과의 관련성에서 「行樂圖」, 「明月亭」의 실증적 원전 탐구의 업적⁶⁾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외에도 개화기 소설중에서 명대 話本소설과의 연관성이 발견되는 예가 몇 편 더 있는데, 「적선여경늑」, 「靑樓義女傳」, 「報應」, 「神斷公案」1, 2, 3, 5회가 그것이다⁷⁾.

개화기에 나온 소설 중 중국 明代話本소설과의 영향관계에 있다고 지금까지 밝혀진 작품을 정리하면, 대체로 문명개화 指向的인 新小說類와 素材면에서 舊小說의 요소를 상당 부분 가지면서, 주로 勸善懲惡의 주제를 나타내는 작품들로 일단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내용과 형식, 시대적 배경 혹은 소재적인 면에서 특징을 추출, 유형화한 상대적인 구분이다. 왜냐하면, 舊小說의 작품중에서도 개화기 시대의식을 반영하거나 신소설의 전개방식을 따른 작품들도 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소설”이라 命名된 작품들 중에도 구소설의 주제와 같은 작품들이 발견된다.

본문에서는 일단 이러한 구분에 의해 韓國 開化期에 나온 舊小說의 작품 중에서 <神斷公案> 1, 2, 3회를 중심으로 개화기라는 시대 배경 아래 明代小說이 어떤 형태로 수용되고, 어떻게 變移되었으며, 그 변이의 원인과 의미등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神斷公案>과 <龍圖公案>

- 1) 宋敏鎬의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研究」에서(1975)에서 다수의 開化期 小說들이 舊小說의 작품임을 실증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밝혔다.
- 2) 李在銑, 葉乾坤, 成賢子등에 의해, 주로 晚清문학과와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 3) 徐大錫, 「新小說 <明月亭>의 翻案樣相」, 국어국문학 72.73합병호, 1976.
李憲淳, 「新小說 <行樂圖>研究」, 국어국문학 84호, 1980.
- 4) 이 중 「적선여경늑」, 「靑樓義女傳」, 「報應」, 「神斷公案」5회에 대해서는 曾天富, 韓國小說의 明代擬話本小說 受容의 一考察(釜山大 석사논문, 1988, 2)과 曾天富, 開化期新聞小說 「적선여경늑」에 대한 考察(韓國文學論叢 第12輯, 韓國文學會, 1991) 참고.

「神斷公案」은 1906년 5월 19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皇城新聞>에 연재된 작자 無署名의 公案類小說로 모두 7話이며, 문체는 懸吐白話文이고 回章體 形式을 취했으나 각기 분리된 일곱 가지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엮여져 있다.

그 내용은 官廷에서 獄事를 다루는 관원이 범죄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헌홍 교수는 그 명칭을 訟事小說이라 命名하였다⁸⁾. 각 回目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第一回 美人竟拚一命 貞男誓不再娶
- 第二回 老大郎君遊學 慈悲觀音托夢
- 第三回 慈母泣斷孝女頭 惡僧難逃明官手
- 第四回 仁鴻變瑞鳳 浪士勝明官
- 第五回 妖經客設齋成奸 能獄吏具棺招供
- 第六回 踐私約頑竟逞凶 借神語明官捉奸
- 第七回 癡生員驅家葬龍宮 孽好兒倚樓驚惡夢

全 7 話의 내용을 분석하면, 1,2,3,5회는 道士와 僧의 惡行을 다룬 것이고, 4회는 奇人의 一生을, 6회는 애정으로 인한 殺人사건을, 그리고 7회는 교활한 奴僕 때문에 고생하는 上典의 이야기를 통해 노복의 신분상승의지를 그리고 있다. 구체적인 시대 배경은 15世紀 末葉 成宗代에서 19世紀 中葉 哲宗代까지 4世紀에 걸쳐 있으며, 공간적 배경은 北으로 평양 등지에서 南으로 晉州에 이르기까지 三千里에 걸쳐 있어 時代性과 社會性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身分, 職業이 다양한 수십명의 人間型이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은 역시 善人型과 惡人型이다. 이는 勸善懲惡의 주제에 따른 必然的인 현상이며, 그외도 여러 人間像이 등장하여 당시 세태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8) 李憲洪, 朝鮮朝 訟事小說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論文, 1987) pp.15-20.

李憲洪교수는 이 論文에서 公案小說 대신 訟事小說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韓國에서 公案이란 말이 '관공서의 문서'와 '禪家의 話頭' 등 同音異義語로 쓰이고 있어 용어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관공서의 문서'에서 '訴訟事件의 문서'라는 뜻으로 轉用되어 쓰인다고 해도 그 의미 속에는 <事由-所志(告狀)-倂音-看檢-判詞>라는 規格화된 格式을 갖춘 것이라는 의미가 강해 창작작품으로서의 小說이 지닌 허구성의 의미를 감소시키는 弊앙스를 풍기기도 하기 때문에, 韓國의 경우 公案小說보다 재판사건 혹은 소송사건을 의미하는 말로써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인 '訟事' 小說이라고 命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開化期 舊小說의 작품에 나타난 明代話本小說의 영향과 그 의미

지금까지 <神斷公案>에 대해서는, 대체로 구소설적 요소가 다분한 작품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재선 교수는 <神斷公案>이 言語表現 양식에 있어서 이전의 李朝小說에서 훨씬 退行하는 한문체로 머물러 버림으로써 小說史에 있어서 繼承 發展의 획기적인 境界區分을 할 確定性은 어디에도 없는 작품이나,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비교적 소설이 망각되고 있던 時代에 이 같은 중국식 裁判小說이나마 게재함으로써 腐敗한 官僚의 吏道에 刺戟을 주고, <大韓每日申報>와 함께 신소설의 출현을 준비하는 한 外的 要因으로서의 모티브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⁹⁾.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송민호 교수는 <神斷公案>이 公案기록을 바탕으로 한 社會性的 반영, 사건의 내용을 究明하는 데 있어 推理小說的인 작자의 의도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등 現實性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신소설에서와 같이 近代的 開化思想의 鼓吹는 물론 新思潮의 反映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는 朝鮮末葉의 社會相의 變遷이 傳統意識을 根幹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작품은 小說史上 한문소설의 마지막 再興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였다¹⁰⁾.

홍성대는 括弧속에 작자의 의견이나 교훈성을 곁들인 풍자가 들어있고 擬聲語등의 표현방식에 유의하여, 이 작품이 소설의 領域, 背景, 構造, 性格, 思想的 背景과 主題, 內容, 事件의 전개등 諸要素가 舊小說의인데 비해 表記의 變化現象은 비록 부분적이지만 過渡的인 轉換의 一面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¹¹⁾.

한원영 교수는 개화기 신문소설을 총정리하면서 이 소설이 社會問題에 깊숙히 관여하면서도 朝鮮朝 社會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기존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은 신소설과 다르며, 小說史上 公案類小說로서의 특색과 漢文小說로서의 마지막 형태라는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¹²⁾.

이헌홍 교수는 角度를 달리하여 <神斷公案> 1, 2, 3회가 각각 낙선재본 한글 번역소설 <包公演義>중의 「阿彌陀佛講和」, 「觀音菩薩託夢」, 「三寶殿」과 같은 내용이며, 第四回중의 3, 4번째 이야기는 鳳伊型說話를 바탕으로 쓰여졌고, 여섯번째 이야기는 <韓國口碑文學大系>에 나오는 朴永의 이야기와 중국 宋代 桂萬榮의 <棠陰比事>중의 「子產知姦」, 「莊尊疑哭」 그리고 第五回는 <棠陰比事>의 「李傑買棺」과 같은 모티브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처음으로 <神斷公案>의 來源에 대해 밝혔다¹³⁾.

9) 李在銑, 韓國開化期小說研究, 一潮閣, 1985, pp. 49-51.

10)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研究, 一志社, 1986, pp. 65-86.

11) 洪性大, 開化期漢文小說考, 高麗大教育大學院碩士論文, 1983, pp. 21-48.

12) 韓元永, 韓國開化期新聞連載小說研究, 1990, pp. 116-120.

13) 李憲洪, 앞의 논문, p. 72.

이에 대해 심경호 교수는 第1,2,3회의 작품이 中國明代話本小說集인 <龍圖公案>¹⁴⁾의 해당편에서 번안되어 나왔다고 하였으며¹⁵⁾, 박재연 교수의 논문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¹⁶⁾.

또한 第五回 「妖經客設齋成奸 能獄吏具棺招供」은 筆者에 의해 中國明代話本小說集<初刻拍案驚奇> 卷17과 <續今古奇觀> 卷17로 수록되어 있는 「西山觀設錄度亡魂 開封府備棺追活命」의 번안작품으로 밝혀져 중국소설과의 연관성이 증명되었다¹⁷⁾.

그러나 이들 중국소설과의 관련성이있는 것으로 알려진 1,2,3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原本과의 對照를 통해 翻案樣相을 살핀 바는 없으며, 그 變移의 原因이나 시대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고 있다.

<神斷公案>은 우선 그 명칭에서부터 中國小說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하는데, 明代公案小說集의 제목중 상당수가 '神斷公案'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다.

新評龍圖神斷公案

新鑄全像包孝肅公神斷百家公案演義

新鑄國朝名公神斷詳情公案

新鑄國朝名公神斷詳刑公案

新刻名公彙集神斷明鏡公案¹⁸⁾

<神斷公案> 1,2,3회의 原本인 中國小說集 <龍圖公案>은 宋代의 清官 包拯(999-1063)이 억울한 사건을 당한 사람들의 冤을 풀어주는 이야기 100篇을 모아 꾸민 단편소설집으로 여러 版本이 있¹⁹⁾. 모두 10卷 100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明代 萬曆年間(1573-1615) 無

14) <龍圖公案>은 중국소설사에서 公案小說로 분류되는 作品集인데, 公案小說은 작품의 구조적 성향에 따른 類型 분류이고 형성 내지는 존재의 양태로 보아서는 話本小說類에 속한다.

15) 沈慶昊, 朝鮮後期小說考證(1), 韓國學報 第五十六輯, 1989 가을, p. 86.

16) 朴在淵, 朝鮮時代 中國 通俗小說 翻譯本의 研究, 韓國外大中國語科博士論文, 1993, p. 431.

17) 曾天富, 韓國小說의 明代擬話本小說 受容의 一考察, 釜山大碩士論文, 1988.2 pp. 55-67.

孫秉國, 韓國古典小說에 미친 明代話本小說의 영향, 東國大博士論文, 1989, pp. 112-119.

18) 馬幼垣, 中國小說史集稿, 臺北 時報文化出版, 1987, pp. 174-175.

19) <龍圖公案>의 版本은 100則의 故事가 다 수록되어 있는 繁本과 一部가 수록되어 있는 簡本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으로, 前者는 清初刊大本과 四美

開化期 舊小説의 작품에 나타난 明代話本小説의 영향과 그 의미

名氏 撰으로, 序文에 “江左陶煥元乃斌父題于虎丘之悟石軒”이라 기록되어 있다.

包拯의 故事는 수백년 이래 중국인의 마음속에 민족의 공통된 기억으로 正義와 法律秩序의 清官像으로 존재해 왔다.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 不公平한 법률적 대우를 받거나 강한 자의 압박에 시달릴 때 「包青天²⁰⁾」의 출현을 기다린다. 때문에 包拯은 司法의 公正과 正義의 化身으로 이미 전형적 인물이 되었으며, 그를 중심으로 한 재판 이야기는 백성들의 內在的 희망을 표현하는 중국 민간 通俗文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包拯은 원래 宋代의 官員으로 史傳중 간략히 기재된 역사인물인데, 民間文學의 소재로 자라나 영웅인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眞實에서 虛構로의 轉換過程은 민간문학의 풍부한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동시에 시대배경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包拯故事 역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달라졌다. 그 속에 반영된 사건은 백성들의 행복과 직접 관계된 吏治, 犯罪行爲, 法律裁判등으로 時代環境과 지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이야기 자체가 드러내는 내용의 社會性 역시 농후하다.

包拯의 故事는 宋, 元, 明, 淸 四대에 걸쳐 戲劇, 小説, 說唱등의 여러 문학 양식으로 존재해 왔으며, <龍圖公案>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包拯의 故事를 다룬 <百家公案>이 나왔는데 역시 明代 公案話本小説集이고, 이들 외에도 <廉明公案>, <律條公案>, <詳刑公案>, <詳情公案>등이 있다. 이들 明代 短篇集들 간에 줄거리의 중복 현상이 보이며, 馬幼垣의 연구에 따르면, <龍圖公案>은 100則 故事중 20則은 <廉明公案>에서, 13則은 以上 여러 本을 기초로 쓴 祖本에서 나왔을 것으로, 48則은 <百家公案>에서 나왔다고 한다²¹⁾.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萬曆 25年(1597) 金陵 萬卷樓 刊 <新鐫全像包孝肅公神斷百家公案演義>(通稱 奎章閣本包公演義)는 이 <百家公案>의 異本²²⁾이며 <百家公案>보다 뒤에 나왔다.

또한 明代에 包拯 故事가 들어가 있는 長篇小説 「平妖傳」이 나왔는데, 이 작품은 현재 그 原本 3種이 한국에 전해지고 있고 낙선재 번역본으로 <平妖記>가 있으며²³⁾, <三言>과 <二拍>중에도 包拯에 관한 故事가 많이 있다.

堂刊本이, 後者는 乾隆乙未 書業堂刊本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版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翁文靜, 包拯故事研究(臺北, 私立輔仁大學碩士論文, 1989) pp.155-163 참고.

20) 包拯은 地位의 上下나 貧富의 격차에 상관없이 公正하게 재판을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했으므로 당시 백성들이 그를 가리켜 「包青天」이라 했다고 한다.

21) 馬幼垣, 앞의 책, pp.147-182.

22) 朴在淵, 앞의 논문, p. 435.

23) 朴在淵, 위의 논문, p. 273.

清代에도 <三俠五義> 계열의 包拯 이야기가 많이 출간되는 등 중국 통속문학에서 상당한 랑을 차지하고 있다.

<龍圖公案>의 내용은 姦淫, 強姦, 殺人, 詐欺, 家庭不和, 竊盜, 誣告 등 각종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明末 사회의 혼란과 商業 發達에 따른 범죄의 증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공정한 판결을 해서 억울함을 풀어 주는 包公에 대한 민간인들의 존경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대부분이 먼저 범죄사건 발생과 소송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判決文과 包公의 訓戒的인 말로 마무리를 짓는 순차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龍圖公案>은 宣祖 年間(1567-1607)에 이미 朝鮮에 들어와 읽혔으며²⁴⁾, 현재 고려대 六堂文庫本과 啓明大 圖書館本이 전하고 있다²⁵⁾. 그리고 번역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낙선재에 한글 번역본이 <包公演義>(通稱 樂善齋本包公演義)란 題名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敬業堂藏本 계통의 繁本 <龍圖公案>을 底本으로 하여 總100則중 80篇의 이야기를 발췌하여 유려한 한글 筆記體로 筆寫한 것이다. 沈慶昊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이 본은 <龍圖公案>중 近親相姦, 輪姦, 屍姦 등에 얽힌 사건이나 國舅처단, 궁중음모등에 관한 내용은 빼고 번역하였으며, 궁중에서 읽힐 수 있도록 篇目을 선정하고 윤색하였으나 대부분이 直譯體의 평이한 문장체이다²⁶⁾.

<包公演義>가 <龍圖公案>의 발췌 翻譯本이고 <神斷公案>중 <龍圖公案>의 翻案本인 1, 2, 3회가 <包公演義>에도 실려 있으나 <神斷公案>은 <龍圖公案>에서 나왔는데, 이 세 작품을 비교해 보면, 우선 表記가 <包公演義>는 한글이고 <龍圖公案>은 백화체인데, <神斷公案>의 표기는 白話에 한글 따를 단 것으로 한글을 보고 다시 白話體로 번역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包公演義>는 朝鮮朝 궁중 도서관인 낙선재 소설이며, <神斷公案>의 출간시기인 1906년은 일제에 의해 주권이 사실상 박탈당한 시기이기는 하나 외형상 朝鮮의 王이 대한제국의 皇帝인 점으로 보아, 아직 궁중이 보호 받던 시기이므로 쉽게 낙선재 소장본이 민간으로 유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는 <神斷公案> 1, 2, 3회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고, 原本 <龍圖公案> 所在작품과의 대조를 통해 그 차이점을 찾아 한국소설로서의 특징과 變移의 원인을 규명하기로 한다.

24) 宣祖의 貞淑翁主에게 보낸 諺簡에 <包公案>을 보내니 부마에게 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包公案>은 바로 <龍圖公案>이다.

金一根,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1) PP. 113-114 참고.

25) 朴在淵, 앞의 논문, P. 442.

26) 沈慶昊, 앞의 논문, P. 84.

III. 〈神斷公案〉 1, 2, 3회의 翻案樣相

1. 〈神斷公案〉 1회와 「阿彌陀佛講和」

〈神斷公案〉은 公案, 즉 재판사건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한 文書를 바탕으로 구성된 소설이며, 일반적으로 公案小説은 그 성격상 社會性이 농후하다. 한 개인과 개인 간의 私的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法廷에 오르게 되면 社會事件으로 그 성격이 옮겨가게 된다. 왜냐하면 法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리이며 동시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평가원리로, 사건 발생시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곧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행복과 관계를 가진다.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소설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미 사회적인 성격을 띄게 마련이다.

동시에 公案小説은 世態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公案小説의 등장 인물은 고소설의 비범한 인물이나 비극적인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며 그들의 능력도 제한적인 일상인의 그것이다. 또한 사건의 발단이 인간의 일상적인 욕망이나 소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는 이야기로 꾸며감으로써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共感의 폭도 높일 수 있다.

그 서술방식도 고소설의 一代記的 서술에서 벗어나 특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집약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고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우연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訟事의 現場性이 극적 대립과 긴장을 수반하면서 因果關係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등 현실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럼, 우선 〈神斷公案〉 第一回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은 1906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내용을 요약한 「美人竟拚一命 貞男誓不再娶」이란 回目이 붙어있다. 그 줄거리를 살펴보면,

肅宗大王 卽位 16年 慶尙道 晉州府에 許憲이라는 秀才가 있었는데 옆집 아가씨 河淑玉과 은밀히 만나던 사이였다. 하루는 許生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 사이 悟性이라는 중이 늘어뜨린 白布를 보고 올라가 淑玉을 범하려다가 반항하자 칼로 찔러 죽이고 반지, 귀걸이등을 훔쳐 달아난다.

이튿날, 淑玉의 父親은 동네사람들의 말을 듣고 許生을 官

에 고발한다. 晉州 牧使 李公瑄은 公差 두 명을 시켜 사실을 알아내고 悟性을 잡아낸다. 그런 후 再娶하지 않겠다는 허생을 용서하고 後嗣를 위해 억지로 첩을 들이게 한다.

公案小説은 公案事件의 동기나 원인의 발생→대립 당사자들의 갈등→제소→판결과정→판결(갈등의 해소)등으로 플롯이 전개된다. 이러한 公案事件의 발생과 경과, 해결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의 다양한 모습을 작품속에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이 작품에서 公案事件의 동기는 悟性이라는 중의 淫心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는 밤늦게 길을 가다가 白布 한 켤이 늘어뜨려져 있는 것을 보고 훔치려고 당기다가 樓閣 위에서 잡아당겨주자 올라가게 된다. 白布를 끌어올린 이가 아리따운 아가씨임을 본 悟性은 곧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殺人事件이 발생하게 된다. 그의 殺人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다. 淑玉이 저항하며 도둑이라고 외치기 때문에 찌르는 것으로 나온다.

淑玉의 부친은 평소 許生과 사이가 나쁜 이웃사람의 말을 믿고 許生을告한다. 이 과정에서 許生과 淑玉 부친간의 갈등이 드러나는데 淑玉의 부친은 자기 딸의 행위가 모두 許生의 핏에 빠져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許生과 淑玉은 婚姻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마음이 끌려 百年佳約을 맺은 사실상 夫婦였다. 이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오직 그의 부친만이 모르는 상태였다. 때문에 그는 許生을 犯人으로 斷定하고 告한다.

李公瑄은 許生이 끝까지 否認하자 먼저 治罪하여 가두어 두고 公差를 시켜 眞犯 색출에 나선다. 이 과정은 判官의 사건해결 방식으로 범인의 心理와 약점을 이용하여 眞犯을 체포한다. 즉 李公瑄은 許生으로부터 밤마다 木魚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 公差를 시켜 周圍의 증을 찾는 한편, 두 公差로 하여금 각각 淑玉과 저승사자로 분장시켜 悟性을 놀라게 해 사실을 토로하게 한다. 사건 해결의 주요 요인은 判官의 지혜이며 이는 牧民官의 능력이 일반 민중의 행복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許生이 淑玉의 殉節을 생각하고 평생 娶妻하지 않으려하자 李公瑄은 後嗣가 없음은 不孝의 으뜸이라고 하여 강제로 娶妻케한다. 단순한 사건 해결자의 역할이 아니라 백성의 父母로서의 면모를 아울러 보여 준다.

이 작품은 許生과 淑玉의 戀情, 悟性이라는 승려의 惡行, 李公瑄의 지혜와 인간됨을 주요 소재로 인간 세상의 갈등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이 작품의 原典인 「阿彌陀佛講和」는 <龍圖公案> 卷1에 실려 있는 여섯 편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이다. 그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德安府 孝感縣에 許憲忠이란 秀才가 있어 옆집 아가씨 蕭淑玉과 마음이 맞아 밤마다 여자의 거처로 찾아가 만나곤 하였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明修라는 僧이 밤에 지나다가 淑玉의 거처로 올라가서 겁간하려다 淑玉이 저항하자 칼을 꺼내어 죽이고 비녀, 팔찌등을 가지고 도망한다.

淑玉의 아버지 蕭輔漢은 평소 許憲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사람의 밀고를 믿고 包公에게 許憲忠을 고발한다. 包公은 許生의 사람됨을 보고 살인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데 許生으로부터 밤마다 어떤 중이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公差 두명에게 소리꾼을 한 명 구해 淑玉인 체 假裝하여 明修를 혼내주고 자백을 받게 한다.

許生은 淑玉을 正妻로 삼고 再娶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 包公이 주선하여 첩을 두게 하고 이에 許生의 자손이 번성하며 사람들이 모두 包公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한 後嗣를 잇게 해준 공을 칭찬하였다.

<龍圖公案> 所在 작품들은 모두 짙막한 이야기로 사건의 발단과 해결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모여 주는데 이 소설도 例外가 아니다. 이 작품의 주요 題材는 奸僧의 非行인데 明代 소설 중에 和尚과 道士의 惡行을 그린 것이 많다. 특히 <龍圖公案>에서 前 時期에 비해 이런 유형의 故事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사건유형은 強姦致死가 가장 많다. 이는 일정 정도 明末의 사회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明代에 많은 君主들이 佛敎를 신봉하자 승려들은 사회의 義務에서 免除되는 특수계층으로 明末 社會腐敗를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 嘉靖末年의 奸僧 武如香, 李明果가 藥으로 張柱一家를 죽이고 그 妻와 兄嫂를 육보였다는 기록이 있다²⁷⁾.

앞서 본 <神斷公案> 第一回와 비교해 보면 그 줄거리가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原典과의 差異點은 地名이 朝鮮 慶尙道 晉洲府城으로 되어있고, 原作에는 없는 時代가 여기서는 肅宗 即位 16년으로 나와 있다. 그의 人名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녀

27) 柳之青, 三言人物研究, 臺北, 國立臺灣師範大學碩士論文, 1990, PP.146-152.

주인공의 이름이 각각 許憲과 河淑玉으로 원전에서 한 字를 빼거나 조선에는 없는 姓氏를 고친 것으로 보인다. 그의 惡僧 明修는 悟性으로, 시대배경을 조선으로 했으므로 包公은 晉州 牧使 李公瑄으로 바꾸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明修가 淑玉을 해치고 도망하는 장면에서 原典에는 비녀와 귀걸이, 반지를 가지고 가는데, 翻案本에는 悟性이 비녀와 귀걸이 그리고 淑玉의 거처로 올라갈 때 쓴 白布 一疋을 가지고 간다고 되어있다. 이는 原典에서 “見樓上垂白布到地, 彼意其家晒布未收, 思偷其布...”라 하고도 나중에 가져가지 않는데, 「神斷公案」의 작자가 옮기면서 原本에 맞추어 첨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외, 무대를 朝鮮으로 옮김에 따라 달라진 부분이 보인다. 奸僧을 놀라게 해 자백을 받아내는 대목에서, 原本에는 公差 두명이 저승使者로, 다른 女子 한명을 고용해 淑玉으로 假裝하는데, 翻案本에는 公差 두명이 하나는 저승사자로 하나는 淑玉으로 假裝한다고 되어 있다. 중국에서 저승사자는 通常 두명이 함께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비해, 韓國에서는 한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번안본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原本의 성격이 包公의 奇智로 인한 사건 해결에 중점을 둔 데 비해, 번안본에서는 사건 해결의 과정보다는 許憲의 信義와 淑玉의 절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관계되는 몇 단락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許憲忠道:「通姦之情, 瞞不過衆人, 殺亦甘心肯認, 若以此擬罪, 我亦無辭. 但殺死事, 實非是我.」²⁸⁾

許生所供內에 通姦의情由는 既是一洞所共知은즉 民不敢一毫瞞過오 亦不肯一毫瞞過오니 以此定罪擬律호오면 雖死無恨이오되 至於殺死事故호야는 民既與彼情厚호와 五六個月을 暮入震出이 殆無虛日이오며 山盟海誓가 無所不至이온즉 縱有不合事情이나 忍肯一夜殺死리오 伏乞城主父母는 明白洞燭호와 潛通未嫁女五字로 定民罪案호옉고 誦捕殺人的凶兒호야 以洩淑玉地下之冤호오면 民雖萬死나 當蹈舞於九泉호리이다.²⁹⁾

28) (清) 敬業堂藏板本 百斷奇觀繡像龍圖公案 (高麗大學校 六堂文庫)卷1 「阿彌陀佛講和」 姑蘇原本 繡像龍圖公案 (臺灣, 天一出版社 影印本, 1974)卷1 「阿彌陀佛講和」

29) 「神斷公案」1回, <皇城 新聞> 1906년 5월 22일 연재분.

嫌疑犯으로 관가에서 대답하는 허생의 말이 「神斷公案」에서 원문보다 상당히 길어져 있다. 원문은 包公의 판단으로 허생이 범인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데서 허생의 긴 말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지만, 번안본에서는 包公으로 대치되는 인물이 가지는 의미와 그에 대한 기대가 없으며 오히려 허생의 입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죽일 수 없는 것이 人之常情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기며, 작품속에서도 거듭 강조된다.

包公乃問憲忠道：「...你做秀才，奸人室女，亦該革去衣衿，更有一件，你尚未娶，淑玉未嫁，雖則兩下私通，亦是結髮夫妻一般，況此女爲你垂布，誤引此僧，又守節致死，亦無玷名節，何愧汝婦，今汝若欲再娶，須先去衣衿，若欲留前途，便將淑玉爲你正妻，你收埋供養，不許再娶，此兩路何從。」³⁰⁾

李公이問諸許生호되 爾心에原視淑玉을 如娼家女子호야 認之以一時蕩情之事而已乎아 抑或情深義重에 許有爲夫爲妻의盟約否아. 今河淑玉이爲汝致死호니 爾又將何以待之오. 許生이垂涕曰 民은原尚未妻호옵고 淑玉은原尚未嫁호와스즉 雖則兩下相通이오나 亦是結髮夫妻로一般이옵고 況且淑玉素性이 貞良無比오되 只與民으로 偶相牽引호야 如癡鶯嬌蝶之不能相捨라. 以故로 渠嘗囑我相娶호고 民亦許渠相娶호와 定謀完結成婚에 以期百年之偕老러니 不意造物이 沮戲호고 ... 但此淑玉이 不肯爲惡僧의所玷汚호야 一死明白에克全貞節호얏스즉 念及前盟에非唯認之以一時蕩情이 萬萬不可라. 民而數寸剛腸이 鎖碎殆盡호야 從此로無心再娶오 但收埋淑玉호야 認爲正妻호야 不負當日之盟일가호오니....³¹⁾

包公이 허생에게 秀才이면서 사사로이 정을 통한 데 대해 질책하면서 하는 말이 翻案

30) <龍圖公案>, 앞의 판본.

31) 「神斷公案」2回, 앞의 新聞, 1906년 5월 24일 연재본.

本에서는 許生 자신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包公이 내건 兩者擇一의 조건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허생 자신이 먼저 결정하여 卞生 再娶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淑玉이 절개를 지켰기 때문이다.

또 原本에서, 다시 再娶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은 包公은 天理에 맞다고 하여 허생을 용서하는데, 번안본에서는 李公瑄이 惻隱히 여겨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文書를 上官인 道伯에게 올린다고 되어 있다. 중국 明代小說에서 天理란 말이 등장인물의 行爲準則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이 말은 朱子學에서 말하는 理로 宇宙萬物을 구성하는 본체이며 실제 생활에서는 三綱五常, 즉 人倫道德의 行爲規範으로 일종의 絕對命命으로서의 권위를 가진다. 그러나 明代中葉 이후 社會經濟의 발전과 社會氣風의 변화에 따라 儒者들 사이에 人心의 欲求를 肯定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王陽明으로 대표되는 心學에서 「心即理」 즉 忠, 孝, 弟 등의 행위도 朱子學의 所謂「理」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良知」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天理」는 더 이상 外在的인 규범이나 질서가 아니라 自然的인 情感에 의한 內在的인 규범으로 近代資本主義 人性論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明代에 나온 소설에서 「天理」란 말은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많은데, 「阿彌陀佛講和」에서 包公의 입을 빌어 天理에 합당해서 허생을 용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包公은 허생이 再娶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淑玉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음도 不辭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 대한 情誼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神斷公案」에서 허생이 淑玉의 항거와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金石之盟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再娶하지 않겠다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神斷公案」에서는 사실상 夫婦인 이들 男女間의 節概와 信義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소설 말미에 原作에는 없는 評이 이렇게 나와 있다.

桂巷稗史氏曰 河氏之全節也와 許生之全義也여 可謂婦烈夫貞
에 兩盡其道로다. 彼李瑄은 何人也오, 國史姓譜에 其名이 俱
佚不載호니 惜哉라. 32)

이 해설은 작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이 개화기 신문에 연재된 소설임을 감안할 때, 목적의식을 가진 작자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작자는 중국소설

32) 주 31)과 同一, 1906년 5월 25일 연재분.

開化期 舊小説의 작품에 나타난 明代話本小説의 영향과 그 의미

을 소재로 일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게재하였을 것이다. <皇城新聞>은 1898년 獨立協會가 해산되고 이에 따라 <獨立新聞>이 폐간되자 이 <獨立新聞>의 취지를 계승, 창간되어 韓日合併이 될 때까지 발간되었으며, 民族의 啓導와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데 앞장 선 신문이다³³⁾. 「神斷公案」에서 비록 보다 近代指向的이고 愛國啓蒙的인 主題를 찾아 내기는 어려우나, 節義의 강조는 國民啓導의 측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惡行을 행한 僧侶가 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내용은 勸善懲惡의 계몽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아진다.

즉, 「神斷公案」 1회는 중국소설 「阿彌陀佛講和」를 번안한 작품인데, 그 과정에서 原本에서보다 節과義의 강조에 중점을 둬으로써 비교적 敎化的인 측면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2. <神斷公案> 2회와 「觀音菩薩託夢」

<神斷公案> 第二회는 190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12회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그 回目은 「老大郎君遊學 慈悲觀音托夢」으로 郎君이 遊學하는 도중에 婦人의 厄運을 觀音이 託夢하여 구했다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 줄거리를 먼저 요약한다.

正祖 8년 全羅道 鎭安郡에 사는 노총각 宋之煥이 노처녀 李氏와 결혼했다. 송도령은 도박장이나 출입하는 無學青年이었으나 李夫人은 용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才藝가 非凡한 사람이었다. 新婚 初夜에 李氏는 남편에게 10년을 기약하고 공부하게 한다. 宋之煥은 부인의 권고로 福安寺에서 학문에 열중하는데 그 곳의 중인 慧明과 가까이 지낸다.

어느날 慧明은 宋之煥의 집으로 찾아왔다가 李氏의 姿色에 마음이 반해 남편이 아프다는 핑계로 납치해 간다. 절에 도착한 李氏는 사실이 아님을 알고 돌아가려하나 慧明의 계교에 말려들어 하룻밤을 지내게 된다. 그날 밤 慧明이 육보이려하자 李氏는 祖母의 忌日이란 핑계를 대고 위기를 모면하

33) 韓元永, 앞의 책, pp.37-41.

지만 절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삼, 사일이 지나 宋之煥이 절에 돌아오자 慧明은 큰 鐘속에 가두어 죽이려한다. 李氏는 남편의 危急을 구하려고 세 가지 提議를 하여 時日을 지연시킨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宋之煥의 獨子 瑞麟은 사정을 살피고 巡使道에게 顛末을 陳情하였다. 巡使道는 前日 三日이나 現夢한 일이 있어 그것을 근거로 宋生과 李氏를 구해 伸冤하고 慧明을 체포하였다.

이 작품은 分量에 있어 短篇小說의 體裁를 갖추었고, 小說的 構成 역시 짜여 있어 小說論의 검토의 對象이 될 만한 작품이다.

사건 발단의 動機는 慧明이란 중의 淫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第一回와 같은 내용인데 당시의 실제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慧明의 好色行脚은 격심하여 李夫人이 처음이 아니라 良家 婦女를 寺內 樓下에 감금해 두고 板子로 두경을 해 덮어 出入門을 만들고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러나 李氏는 이러한 慧明의 강권에도 屈하지 않고 奇智를 내어 끝까지 정절을 지키며, 게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남편을 도와 준다. 그는 慧明이 鐘에 넣어 남편을 죽이려하자 세 가지 제의를 하는데, 이왕 百年偕老할 바에야 吉日을 택해 婚禮를 올리자는 것과, 둘째로 宋生으로 하여금 굶어죽은 冤鬼가 되지 않게 음식을 조금씩 주어 自然死를 기다리게 하자는 것, 세째 慧明의 지나친 戲弄을 삼갈 것등을 들어 시간을 번다. 李氏의 지혜는 효과를 발휘해 巡使道가 남편을 구할 수 있는 여유를 벌게되고 자신도 풀려나게 된다.

男主人公인 宋之煥은 공부에만 열중하고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나약한 面을 보이는 반면, 女主人公 李氏는 聰明과 機智를 발휘하여 위기에 과감히 맞서는 자신감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開化期 近代指向의인 女性像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건 해결의 과정은 巡使道의 꿈에 觀音이 現夢하여 寺內에 억울한 일이 있음을 알리고 宋生 아들의 陳情이 뒤따라 있자, 福安寺로 와서 핏자국을 발견하고 宋生을 구하며 慧明을 잡아들인다. 여기서 사건 해결을 가능케하는 주요 요인은 觀音菩薩의 託夢인데,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 꿈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꿈 자체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판관의 機智가 꿈속에 제시한 金氏 姓을 가진 童子가 바로 鐘을 일컫는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을 때에만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억울함은 어떻게든지 풀리게 마련이라는 事必歸正의

開化期 舊小説의 작품에 나타난 明代話本小説의 영향과 그 의미

교훈과 判官의 지혜가 중요함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즉 이 작품은 승려의 욕정으로 인한 부녀자 유괴와 殺人未遂 사건을 소재로 부녀자의 지혜를 통한 위기 모면과 事必歸正의 교훈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의 原典인 「觀音菩薩託夢」은 <龍圖公案> 卷1의 두번째 작품으로 앞서 살펴본 「阿彌陀佛講和」와 한 짝이다. <龍圖公案>의 每篇 故事는 篇目이 모두 相對的인 두 則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篇은 篇目的 相對性 이외에 往往 비슷한 내용과 성질을 갖는 경우가 많다. 「觀音菩薩託夢」 역시 奸僧이 부녀자를 납치해 가고 그 남편을 해치려다가, 觀音菩薩의 託夢으로 包公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그 줄거리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貴州道 程審府에 丁日中이란 秀才가 있었는데, 福安寺에서 글 공부를 하면서 性慧란 僧과 가까이 지냈다. 하루는 性慧가 日中の 집으로 찾아갔다가 日中の 妻 鄧씨의 美色에 빠져 日中이 나들이 간 사이, 道士 두명을 고용해 남편이 중풍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鄧씨를 납치해 오게 한다.

鄧씨가 도착하자 性慧는 日中の 병이 위급하지 않다고 안심시키고 남편이 있는 곳까지는 너무 머니 하루밤 쉬어가게 한다. 그날밤 性慧의 강박으로 禍를 당한 鄧씨는 뒷날 복수를 위해 삭발하고 중으로 가장한다.

한 달 餘가 지나 日中이 돌아오자, 性慧는 鐘속에 가두어 죽게 한다. 그후 삼일이 지나 包公이 이 곳을 巡視하는데 꿈에 觀音菩薩이 나타나 福安寺로 인도하는데, 큰 鐘이 黑龍을 덮고 있는 것을 연달아 보고 가서, 日中과 鄧씨를 구한다.

鄧씨가 이제 복수를 했으니 죽을 수 있다며 기둥에 머리를 박고 죽으려 하자, 包公이 말리고 日中과 다시 해로하게 한다.

앞서 본대로 그 줄거리는 <神斷公案> 第二回와 같지만, 1回와 마찬가지로 <神斷公案>에서는 地名이 朝鮮의 全羅道 鎭安郡으로 바뀌어져 있고, 人名도 丁日中은 宋之煥으로, 그의 妻는 李씨로, 奸僧 性慧는 慧明으로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원작의 篇幅보다 현저히 긴데, 다음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故事의 삽입을 들 수 있는데, 소설 序頭에 노총각 宋之煥과 노처녀 李씨의 결혼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宋之煥은 樗蒲賭博場이나 出入하는 無學青年이었으나, 容貌가 뛰어날 뿐 아니라 총명한 李씨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첫날 밤, 李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10년을 기약하고 남편을 글공부하게 떠나 보낸다.

...居萬民之上하야 施恩德於萬民하고 除暴害於萬民를 如本道
道伯者는 其功이又何如오. 君爲士族子弟하야 苟有學問이면 致
君澤民에 無所不可어늘 今君이 如此浮蕩하야 不知學問하
니 君若一向如是하야 不自覺悟면 妾當手刃自刺어니와 君이
悔過自新하야 從事學業이면 妾은 死無所恨하리니 君將奈何오.³⁴⁾

아내가 남편을 타일러 공부를 시키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같은 이 내용은 原本에는 없는 것으로, 그 분량이 約 2회 연재분에 달한다. 그러면 왜 「神斷公案」의 작자는 원작에 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삽입시켰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말한 대로 <皇城新聞>은 개화기 언론 매체를 통한 계몽주의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啓蒙의 내용 중 교육의 증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³⁵⁾. 이씨의 말을 빌리면, 學問을 하는 것이 곧 임금을 바로 세우고 백성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작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며, 이 소설이 나온 시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改作한 것임을 알려준다.

奸僧의 흉계에 빠져 부부 둘 다 禍를 당하던 중, 原本에서는 觀音이 包公의 꿈에 現夢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번안본에서는 그 전에 송씨부부 사이에 瑞麟이라는 아들을 두었고, 이 아들이 부모가 나간 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상히 여겨 巡使道에게 陳情을 하고, 巡使道는 마침 현몽한 일이 있기에 조사하여 송씨부부를 구해 준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역시 原作에 없는 내용의 첨가로, 당시의 사람들의 사실인식 정도에 맞게 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現夢한 것만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성이 떨어지며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첨가시켰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判官의 現夢 내용이 각기 다르다. 原本에서는 직접 鐘이 보이는데 번안본에서

34) 「神斷公案」 2회, <皇城新聞> 1906년 5월 26일, 28일 연재분.

35) 韓元永, 앞의 책, PP.37-41.

開化期 舊小說의 작품에 나타난 明代話本小說의 영향과 그 의미

는 金氏 姓을 가진 童子가 때를 맞아 다 죽게 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判官이 절에 와서 핏자국을 따라가서 큰 鐘을 발견하고, 金氏童子가 바로 鐘을 가르키는 것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번안본에서 疑問點을 만들고 풀게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序頭의 내용과 相互 부합한다. 즉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한 智慧, 奇智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외 원작과 다른 점은 내용 전개나 인물 묘사에 있어 原本보다 자세하고 세밀하다. 예를 들어보면,

話說貴州道程審府，有一秀才丁日中，常在福安寺讀書，與僧性慧，朝夕交接。³⁶⁾

...且說 鎮安邑附近地에有一山曰 馬耳라. 山頂에有雙石이 兀然秀拔호야 其形이酷似馬耳호니 相傳 我 太宗微時에遊幸至此라가 馬耳로名之라호야 以勝地로見稱於全羅道中호고 山有寺曰 福安이니 亦數百年傳來古刹이오. 寺有僧徒數十人호니 皆頑傲無識호中 獨有慧明爲號的僧人이 粗解文字호고 喜與士大夫往來라. 宋生이成名歸家에 尤喜讀書호야 聞福安寺 |地僻人少호고 遂往駐寺中호야 靜坐讀書호더니 慧明의爲人이 巧猾호야 宋生이或有些小請求호면 他僧은不應호되 慧明은 一語百諾호고 宋生이或有遠地通奇호면 他僧은 不肯호되 慧明은一瞬千里호고 慧明이又常常備進茶飲호야 以待宋生호니 宋生이視慧明을如手足耳目호야 不肯相捨호고...³⁷⁾

原本의 한 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加味시키고 있다. 또한 인물 묘사가 原本에는 거의 없는 데 비해, 번안본에는 자세하고도 뛰어난 묘사하고 있다.

性慧見鄧氏容貌美麗，言詞清婉，心中不勝喜慕...³⁸⁾

36) <龍圖公案> 卷1, 「觀音菩薩託夢」, 앞의 판본.

37) 神斷公案, 앞의 신문, 1906년 5월 28일 연재분.

38) 주 36)과 같음.

微舉目睨視李氏호니 顔如新發의芙蓉唇如正熟의櫻桃호고 眉樣은八字雙分호고 眼光은秋波가細癡호고 兩耳는 不大不小호고 鼻梁不高不低호고 十指는春筍이始抽호고 雙鬢은晚雲이初收호든 初看에是花是月이오 再看에非花非月이라 如此美人은 何處人間에 更有호 리오 身上穿去의衣服은 不過是 紬細布에 村閨女子의貌樣이로되 何其奇文異彩가 悅悅惚惚에 逼人耳目고 慧明의 精神魂魄이 盡飛入雲霧中去了호야 直與草人木偶로 一般이러니...³⁹⁾

하고 판소리의 아니리를 연상시키는 美人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原作보다 내용을 첨가시킨 대목은 소설 전반에 걸쳐 고루 나타나는데, 「神斷公案」 2회의 주요 번안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原作에서 包公의 事件 해결을 통한 事必歸正이 주제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이와 동시에 女子의 節行과 智慧를 칭찬하는 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原本에서 유괴당한 鄧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性慧에게 절개를 잃는데, 「神斷公案」에서는 李씨가 祖母의 忌日을 핑계로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남편을 기다린다. 그리고 奸僧이 남편을 죽이려고 하자 鄧씨는 울기만 하는데 비해 李씨는 鐘 밑에 두되, 음식을 조금씩 주어 自然死를 기다리자는 꾀를 내어 남편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마련한다.

여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절개를 지키는 모습은 한국의 소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심지어 기녀를 대상으로 한 소설에서조차 一點鸚血을 보존한 처녀로 나온다. 앞서 정리한 중국소설 「杜十娘怒沈百寶箱」의 번안작인 「靑樓義女傳」에서도 원작에는 이미 接客한 것으로 나오나, 번안본에서는 처녀성을 간직한 여자로 등장시킨다. 이것은 朝鮮朝 激昂된 貞節意識의 단적 표출이며, 도리어 작품의 事實性에 흠집을 남기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慧明은 그 好色行脚이 淫蕩의 極을 이루는 인물이다. 그는 李씨를 납치하기 전에도 良家 婦女를 寺內 樓下에 監禁해 두고 판자로 두경을 해 덮어 출입문을 만들고 수시로 淫慾을 채우곤 했다. 李씨의 표현에 의하면 “麗朝辛旽故智를 此和尚이 乃襲用之로다”라고 비유하였다. 이러한 수단을 가진 慧明의 魔手를 벗어나게 묘사하기에는 실제로 상당한 무리가 따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혜를 자내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39) 神斷公案, 앞의 신문, 1906년 5월 29일 연재분.

開化期 舊小說의 작품에 나타난 明代話本小說의 영향과 그 의미

것은 본래 李씨가 才貌를 겸비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고 또한 이 점이 原本과도 다른 부분에 속한다. 이는 초기에 남편을 공부시키게 하는 말과 맞물려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啓導하려는 작자의 의도를 알게 한다. 다음 인용하는 末尾의 評에 이런 점이 잘 드러나 있다.

桂巷稗史氏曰 奇哉라 李氏之才여. 激成郎君於年長失學之後하고 全節不辱於虎口不可測之地하니 使其生爲男子라면 可以托六尺之孤하고 寄百里之命者 | 非斯人歟아. 嗚乎라 攝政之姊는 驚市人於一呼하고 淳肉刑於一疏하야 二之書名竹帛에 垂之千秋어늘 我國은 女子諱名이 特甚하야 不曰 某氏之女면 則曰 某氏之妻라하야 至其幼時所 某姬某童之號도 一切抹殺之不得은 何也오. 是以로 唯蘭雪軒許氏之字 景焚者 | 見於尤侗之外國 竹枝詞하고 其餘는 雖卓卓貞烈之操 而概不得聞하니... 40)

女子의 節概와 志操, 智慧등이 묻히고 만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나아가 女子들의 教育과 한 개인으로서의 正體性회복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는 등 舊小說과는 구분되는 劃期的인 觀點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聽泉者評이 나와 있다.

...聽獄者 | 心存公正하면 物人神天이 皆助我公正하고 心不存公正하면 塵沙土石이 皆蔽我公正하니 非平日清明之在躬이면 其夢에 爲蝴爲蝶이거나 爲雀爲鹿이거나 夢得珠玉거나 夢得酒食이니 何以夢金童哉리오. 雖然이나 慧明之惡이 尤有甚於悟性이로다. 41)

여기서는 觀點을 달리하여, 官吏의 道德觀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神斷公案」 2회는 중국소설 「觀音菩薩託夢」을 원본으로 원작에 없는 내용을 첨가시켜 教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女子의 절개와 智慧를 예찬한 작품으로 文明개화의 시대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40) 神斷公案, 앞의 신문, 1906년 6월 8일 연재분.

41) 주 40)과 同一.

3. 〈神斷公案〉 3회와 「三寶殿」

〈神斷公案〉 第三회는 「慈母泣斷孝女頭 惡僧難逃明官手」라는 回目으로 1906년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줄거리를 살펴보면,

純祖 初年 忠清道 公州郡에 사는 崔昌朝는 夫人 黃氏와의 사이에 天性이 至孝한 蕙娘이라는 딸을 두었다. 한편 그의 아우 崔昌夏는 아름다운 金夫人과 부유하게 살았으나 불행히 夭折하고 그 부인은 혼자 살면서 남편의 冥福을 빌기 위해 一淸이란 僧을 초빙, 每 朔望마다 誦經하게 했다.

하루는 一淸이 淫心을 품고 겁탈하려 했으나 應하지 않자 殺害한 다음 목을 베어 가지고 절로 사라졌다. 金氏가 살해되자 동네 사람들과 金氏의 兄인 金大方은 崔昌朝를 犯人으로 몰아 官家에 告하고 고문 끝에 崔昌朝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上級官廳인 監營에서는 證據가 없으니 被殺者의 목을 찾아오면 免罪하겠다고 한다. 이 말을 전해들은 孝女 蕙娘은 자신의 목을 졸라 자살하고 그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 목을 잘라 官家에 바치게 했다. 이렇게 되자 官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소문 끝에 一淸을 의심하게 되며 黃씨를 잡입시켜 金氏의 머리를 찾아내고 一淸을 잡는다.

惡僧의 淫亂으로 빚어진 殺人事件과 효녀의 殺身成仁으로 구성된 이 이야기는 官의 無能을 폭로하는 사회적 의미도 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역시 奸僧의 欲情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또 金氏가 중을 불러 誦經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건이 일어나자 崔昌朝는 동네 사람들과 金大方에게 혐의를 쓰고 갈히는데, 그 이유는 평소 동생의 재산을 가로챈 생각으로 金氏에게 改嫁를 권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심한 말을 하는 등 金大方에게나 동네사람들에게 인정없고 욕심많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건 해결의 契機는 孝女의 斷頭에서 찾을 수 있다. 蕙娘은 부친의 석방을 위해 죽어도 不辭하는 孝의 極致를 보여주고 있으나 前後 事由와 人情上 無理가 있으며 主題意識

開化期 舊小說의 작품에 나타난 明代話本小說의 영향과 그 의미

의 지나친 誇張으로 받아들여진다. 黃氏가 一淸을 접근하여 그 방탕한 性情을 이용하여 진범을 색출하고 金氏의 머리를 찾아오는 것은 一回에서와 같이 犯人의 心理를 이용한 사건 해결이다.

이 작품에서는 여러 類型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崔昌朝는 財欲과 媿叔의 道理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며, 金氏는 죽은 남편에 대한 집념으로 갈등하다 惡人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蕙娘은 자신의 生命과 父親의 生命 사이에서 방황하다 죽음에 이르고 그 母親인 黃씨는 母性으로 울부짖는다. 또한 金大方이 崔昌朝를 고발하기 전, 昌夏의 친구인 李三郎을 만나 사건의 自初至終을 설명하고 李三郎은 남의 일에 끼어들어 官에서 證人이 되었다가 蕙娘의 죽음을 보게되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心的 갈등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즉 이 작품의 성격은 이러한 여러 인물의 갈등을 形象化하면서 그 가운데 誦經念佛하는 傳來의 풍습을 비판하고 庸官의 無能과 冷酷함을 고발하고 있다.

이 작품의 原典인 「三寶殿」은 <龍圖公案> 卷4의 15則 故事중 11번째 이야기로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惡僧의 淫亂으로 빚어진 殺人事件과 孝女の 殺身成仁으로, <龍圖公案>內 奸僧의 強姦未遂致死를 다룬 소설 중 내용이 가장 殘酷하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福建 福寧州 福安縣에 章達德이란 사람이 妻 黃蕙娘 사이에 玉姐라는 딸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았다. 그옆에 아우 達道가 妻 陳順娥와 妾 徐妙蘭과 부유하게 살고 있었는데 모두 後嗣가 없었다. 어느 날 達道가 우연히 병을 얻어 죽자, 達德은 아우의 재산을 차지하고자 弟嫂의 오빠인 陳大方을 통해 改嫁할 것을 권하지만 順娥는 듣지 않는다.

오히려, 順娥는 陳大方의 둘째 아들을 後嗣로 삼아 평생 수절하려 하지만, 達德에게서 異姓을 後嗣로 할 수 없다하여 거절당하고 이를 안 陳大方은 섭섭해 한다.

順娥는 每月 朔望과 忌日에 龍寶寺의 僧 一淸을 불러 經을 읽는데, 一淸은 나쁜 마음을 먹고 기회를 타서 順娥를 욕보이려고 하다가 저항하자, 칼로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가서 三寶殿 아래 묻어 두었다.

소식을 들은 陳大方과 이웃 사람들이 達德을 의심하고 大

方은 이를 知府에게 告한다. 無能한 知府는 達德을 가두고 順娥의 머리를 찾아오면 석방하겠다고 한다. 일년餘가 지나 達德의 딸 玉姐는 부친에게서 이 말을 듣고 가난한 집안 살림과 부친의 고생함을 걱정해 스스로 목을 매어 죽고 그 머리로 부친을 구하라고 한다. 모친 黃씨는 울며 딸의 목을 베어 관가에 바치지만, 包公에 의해 다른 이의 머리임이 밝혀지고 내막을 안 包公은 다시 審問하여 一淸을 의심하게 되고 黃씨로 하여금 龍寶寺에 가서 一淸을 피어 사실을 알아내게 한다. 그런 후에 順娥에게는 貞節牌坊을 玉姐에게는 孝牌坊을 세워 기념한다.

〈神斷公案〉 三回와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 故事도 앞의 1,2回와 같이 道僧의 淫亂한 罪狀을 素材로 했는데,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으나, 朝鮮朝 社會風潮로서 妖僧과의 不倫現象은 그 사례가 많았을 것이고, 때문에 이같이 奸僧의 非行을 소재로 한 중국소설이 번안될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神斷公案」 3回的 번안양상은 1,2回와 같이 우선 人名과 地名에서 차이를 보인다. 原本의 章達德과 達道는 崔昌朝와 昌夏로, 陣大方과 順娥는 金大方과 金씨로, 黃蕙娘은 黃씨, 그리고 玉姐는 蕙娘으로 되어 있고 장소는 忠淸道 公州郡과 中菴寺로 바뀌었다.

이런 차이외에 原本에는 없는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는데, 서두에 昌朝가 得病하고 蕙娘의 극진한 간호로 완쾌한다는 내용이 一日 연재분으로 나온다. 이는 뒤에 나오는 蕙娘의 斷頭 사실에 현실성을 가미하기 위해 삽입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간한 孝心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졸라 죽고 그 목으로 부친을 구할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작자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며, 玉姐가 그냥 효성이 지극하다고만 나오는 原作의 내용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또 다른 내용의 첨가는 김씨가 죽고 난 뒤 취하는 金大方의 行動이다. 마음속으로는 동네 사람들과 같이 昌朝를 의심하지만 곧바로 官에 告訴하기 전에 昌夏의 친구 李三郎이라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證人이 돼 줄 것을 부탁한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긴 내용이 첨가되고 있다. 또한 原本에서는 達德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백을 하지 않는 데 비해, 번안본에서는 고문을 이기지 못해 자백하고 옥에 갇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原本에서 이웃사람들의 말만 듣고 斷定할 수 없어 拷問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번안본에서는 李三郎의 말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범인으로 확정짓기 위해 협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末尾에 李三郎의 경솔함을 꾸짖는 桂巷稗史氏의 評語가 나와 있다.

... 愚哉라李三郎이여 始則念死友之誼하야 輕起其獄하고 末則 恨孝女之死하야 竟至病卒하니 甚矣라 李三郎之愚也여 其亦不 欺其意者也로다. 42)

그 외, 다른 점을 찾아보면, 딸에게 머리를 가져오면 석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章 達德이 딸에게 직접하는데, 번안본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모친이 다시 딸에게 전하는 것으로 나오며, 죽는 방법도 原本에서는 목을 매달고 번안본에서는 손으로 자기 목을 졸라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達德이 일년 이상을 갖혀 있는데, 昌朝가 아내에게 머리를 가져오면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하고 때문에 蕙娘이 죽는 것으로 나온다. 이는 「神斷公案」의 작자가 原本에서 일년이 지난 시체의 머리라고 갖 죽은 玉姐의 머리를 바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고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原本의 합리적인 부분을 비합리적으로 고친 곳도 있다. 昌夏가 죽자 金씨는 昌朝의 둘째 아들을 後嗣로 삼아 개가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데 昌朝는 극력 반대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原作에서는 順娥가 자기의 친정 오빠인 大方의 아들을 後嗣로 하려하고 達德이 姓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 작품의 대체적인 번안양상은 原本보다 편폭이 길고 자세한 데 있는데, 昌朝의 貪心과 庸劣함이 原作보다 심한 것으로 여러 차례 나온다.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後嗣로 하는 것까지도 반대하고 이로 인해 大方의 미움을 사고 결국 살인 누명을 쓰는 결과가 된다.

작품 끝에 있는 評語를 통해 작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桂巷稗史氏曰 金娘이 雖烈이나 招僧誦經이 已伏禍根하고 蕙娘이 雖孝나 扼頭自絶이 太近不忍이로다.

聽泉者曰 孰謂蕙娘之太近崩忍哉오 不知死可惡하고 不知孝可慕하고 一時自絶이洵出於本然之天性하니 彼其無內行而慕外名하야 斫斷手指於一時之頃者도 紛紛然以孝旌하거던 況此幼年

42) 「神斷公案」 3回, <皇城新聞> 1906년 6월 27일 연재분.

天良으로 爲其父而自斷其頭者哉아. 43)

前者에서 金씨가 중을 불러서 禍根을 만들었다는 것과 蕙娘이 목을 자른 것이 너무 不忍하다는 評을 하고 있는 데 비해, 後者는 觀點을 달리하여 蕙娘의 孝誠은 天性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見地에서 당연하다고 찬양하고 있다.

이 短評의 역할은 작자의 창작의도를 알려주는 동시에 讀者에게 實在한 사건으로서의 眞實感을 주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것은 公案類 소설이 지니는 장점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現實認識, 事實重視의 開化期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되었을 것이다. 宋敏鎬 교수는 朝鮮末葉에 이르러 架空的인 荒唐無稽한 이야기에 염증을 느낀 讀者들이 實話가 지닌 切實感을 느껴 事實을 彷彿하게 한 점에서 이 「神斷公案」이 많은 흥미를 끌었고, 독자들의 迎合을 받아 長期間 連載된 것으로 보았다⁴⁴⁾.

이 작품의 내용은 계속 연재된 5회와 비슷한데, 둘다 亡夫를 위해 誦經하는 僧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이며, 중국소설의 번안작이다. 3회의 내용이 奸僧의 요구에 反抗하여 禍를 당하는데, 5회에서는 오히려 그 중과 놀아나고 아들까지 해치려하여 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두 작품 다 懲惡에 대한 敎訓과 孝에 대한 칭찬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神斷公案」 1, 2, 3회는 모두 <龍圖公案> 所在 소설의 번안작으로, 그 중 2,3회에서 원작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는 등 편폭이 현저히 길어져 있다. 그 이유는 原作의 내용이 事件報告식의 極短篇이기 때문에 소설작품으로 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現象일 수도 있겠고, 新聞連載小說이므로 편폭을 늘여 한회로 끝나지 않게 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잇점을 노렸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IV. 開化期舊小說의 작품에서의 明代話本小說 수용의 의미

開化期는 開化와 國權수호의 시대적 사명을 다방면에 걸쳐 동시에 수행해야했던 과도기였다. 新舊갈등의 표출은 조선 후기 實學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긍정되었고, 이어 불어닥친 서방열강의 제국주의와 이런 국제적 기류에 편승한 일본의 강압적 문호개방과 國權탈취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自國의 나약함에 대한 반성과 개혁은 바로 사회전반에 걸쳐 근대지향의식의 팽배를 불러왔다.

43) 주 42)와 同一.

44) 宋敏鎬, 앞의 책, pp. 71-72.

開化期 舊小說의 작품에 나타난 明代話本小說의 영향과 그 의미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신문, 잡지등 대중매체의 대량 이용을 통한 문명개화와 애국계몽의 시대의식을 일깨웠으며, 문학권에서는 목적, 주제문학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일시에 불어닥친 이러한 시대적 격동에 대한 문학권의 반응은 여러가지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대중매체의 성격은 한, 두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匿名의 많은 群衆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民衆의 다양한 趣向에 맞으면서도 목적하는 바, 所期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 시기의 문학이 목적문학의 성격을 띄는 것도 이러한 시대의식과 新聞이 문학작품의 주요 발표 紙面이었던 데서 기인한다.

문명개화 측면에서의 문학적 표출은 대체로 신교육, 여권존중, 계급타파, 자유결혼, 평민의식, 자아각성에 의한 현실고발등의 주제를 담아내면서 형식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逆行하는 解剖的 構成과 直接話法의 사용등 근대소설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애국계몽에 치중한 작품들에서는 자주독립, 애국주의의 주제를 從來의 傳형식에 담아 표출하였다.

그러나 개화기에 나온 소설 작품의 실체는 매우 다양하여, 위의 두 作品群 이외에도 古代小說적 형식과 주제를 가지는 작품들이 新聞媒體에 작자 無署名으로 대량 발표되었다. 이는 그 당시의 문학권, 다시 말하면 작자층과 그 향유층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때문에 비교적 개화의식을 가지거나 진보된 형식을 가지는 작품들만의 연구로써는, 개화기문학 一般에 대한 이해의 결핍 및, 문학사의 실제모습에 대해 외면하게 되며, 이럴 경우 올바른 韓國文學史를 정립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들 개화기에 실재했던 舊小說의 작품들 중에는 中國明代小說과의 연관성이 발견되는 작품이 상당수 있는데, 본문에서 살펴본 <神斷公案> 1, 2, 3회와 「靑樓義女傳」, 「報應」, 「적선여경록」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1920년대까지도 번안의 형태로 明代話本과의 상관성이 지속된 것⁴⁵⁾으로 보아 상당수가 未發見 상태에 있으리라 생각된다.

韓國小說의 明代話本과의 연관은 개화기 이전, 朝鮮朝의 일반적 경향이었으며, 중국 작품이 간행되면 곧, 한국에 流入되는 등, 상당히 보편적인 現象이었다. 따라서 비록 時代的 衝擊에 의한 意識的 覺醒이 요구되던 時期이기는 하나, 일반 대중들의 중국소설 趣向은 하루 아침에 변할 수 없는 것이었다. 文化的 傾向性的 轉換은 一朝에 일어나는 것

45) 1923년 東洋書院에서 발행하였고, 작자가 李海朝로 되어있는 「鴛鴦圖」 역시 明代話本小說集 <醒世恒言> 卷1과 <今古奇觀> 卷2인 「兩縣令競義婚孤女」의 翻案作이라 한다. 孫秉國, 韓國古典小說에 미친 明代話本小說의 影響 (東國大學校 박사논문, 1989) PP. 149-157.

이 아니며, 새로운 文化的 文脈이 형성되기 전까지 필연적으로 新舊측면이 共存하거나 相互 依存하는 현상을 보이기 마련이며 文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들 明代話本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은 한국 소설사에서, 일단, 傳統繼承 측면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表記媒體에 있어 國漢文混用의 문체가 비교적 많다. 조선 후기 국문소설의 대량 창작이 漢文小說의 否定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박지원, 이옥등 한국 소설사에서 중요시 되는 작가의 작품이 한문으로 창작된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이 문체의 사용은 「神斷公案」, 「龍舍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작품에 쓰인 白話文은 당시 곳곳에 설립되었던 外國語 학교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中韓 관계의 전통으로 볼 때, 白話를 아는 知識層이 相當數 존재하였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漢文體의 문체 개혁에 대한 작자층의 實踐이라는 측면에서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들 소설에서 具現된 주제는 대체로 孝, 節, 信義에 대한 강조와 勸善懲惡, 事必歸正의 傳統的, 注入的인 과제이며, 진정한 자아각성보다는 下向的, 一方的 강요에 의한 것이다. 이는 소설의 문체와 상당부분 연관을 가지는데, 가령 文言體 문장에서는 작중 인물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지 않음으로 해서 비교적 觀念的인 작자의 視覺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화위주의 문장에서는 작중인물의 內面을 그려내기에 容易하므로, 작자의 의식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지는 한편 비교적 인간 본래의 情感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龍舍玉」⁴⁶⁾, 「報應」, 「青樓義女傳」, 「神斷公案」, 「적선여경록」등 작품이 전반적으로 傳統的, 觀念的 倫理觀에 의해 씌여졌으며, 傳統指向의 주제를 가지는데, 이는 일반 民衆의 嗜好에 보다 접근되어 있음으로 해서 비교적 異質感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新聞을 통해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供給擴大의 필요성에 따른 娛樂性의 具備와 동시에 어느 정도 時代意識을 갖추어야 했을 것이다. 이들 소설이 발표된 신문은 <대한매일신보>, <皇城新聞>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新聞의 성격은 개화와 민족 자주성의 固守를 주요 이념으로 한 계몽성에 있었다⁴⁷⁾. 때문에 이들 신문을 통해 나온 소설들에서, 일정 정도 시대의식이 반영되었으리란 추측이 가능한데, 이 점은 다음 두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6) 曾天富, 「王慶龍傳」의 後代의 變貌樣相(國立政治大學學報 第69期 上冊, 1994. 9 PP. 511-537.)

47) 韓元永, 앞의 책, PP. 37-50.

開化期 舊小說의 작품에 나타난 明代話本小說의 영향과 그 의미

하나는 소설의 構成方式, 즉 事件의 展開樣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신소설에 유행하던 序頭의 描寫形式을 차용한 예가 발견된다. 「報應」에서 前代小說이 취하고 있는 自然的인 배경에서 벗어나, 東學亂의 역사적 사건이 개입된 社會的 배경의 場面 제시형 서두로 작품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前代小說과 구분되는 점이다.

다음으로 내용과 주제면에서 살펴보면, 이들 소설 대부분이 前近代的인 윤리관에 봉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작품에서 격동하는 개화기 時代相을 반영하거나, 시대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다. 「神斷公案」1, 2, 3, 5회에서는 反迷信의 啓蒙性과 敎育의 重視, 「靑樓義女傳」에서는 주인공을 양반자제가 아닌 상인으로 대체시켜 小利에만 급급한 인간상을 비웃으며 보다 큰 大義을 볼 수 있는 인간상을 희망하고 있으며, 「龍舍玉」에서는 국난극복의 영웅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明代話本の 영향 아래 놓인 작품을 포함한 개화기 소설의 일반적 경향인데, 이로써 이들 작품들이 소재적 源泉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層次로 變容,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自主性 守護와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당하였던 이들 新聞들에 발표되었고, 개화기 소설이 갖는 특징을 거의 구비한 明代話本の 翻案작품들에서 왜 애국, 자주, 국권회복등의 當面문제에 대해서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일까?

해답은 다음 몇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개화기의 이들 신문은 1896년 경장내각의 붕괴로 끝난 소수 엘리트의 개화파를 이어 받기는 하였으나, 위로부터의 근대화라는 개화파의 노선과는 달리, 대규모의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발전하는 데 이용된 저널리즘의 대표였다⁴⁸⁾. 봉건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중을 운동을 통해서 국민, 또는 민족으로 급속하게 전환, 단결하려는 국민주의시대의 열기 속에서 새삼 문학의 중요성이 제고되었으나, 이들 작품의 독자층인 민중 자체가 가진 보수성으로, 실제 문학작품의 形象化에서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이들 애국계몽의 내용은 “-傳”, “-記” 式的 歷史傳記類에서 대체로 표현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明代話本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까지 이를 형상화할 필요성이 감소되었을 것이며, 역량 또한 부족했을 것이다.

둘째, 이들 신문들이 주도한 애국계몽운동은 식민지화 이전 부르조아 정치, 사회운동의 마지막 단계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이 시기의 가장 폭 넓은 부르조아 운동이었다⁴⁹⁾.

48) 崔元植, 韓國近代小說史論 (創作社, 1986) PP. 235-244.

49) 姜萬吉, 韓國近代史 (창작과 비평사, 1994) PP. 234-241.

그러나 이 운동은 그 주체들의 사상적 한계와 保護國체제 아래서 합법운동이 가지는 제약성 때문에 보다 積極的이고 全面的인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전통적 孝, 節, 信의 德目으로 回歸하는 迂廻의 방법을 動員하였으리란 추측이 가능하다.

세재, 素材의 측면에서, 前近代적 배경과 主題를 가진 이들 작품들을 媒介로, 애국계몽, 혹은 문명개화를 담아내기에는 당시 작자의 역량이 부족했을 것이며, 신문소설인 점에 유의하면, 매일 나가는 연재분을 주제를 달리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 開化期에 나온 中國 明代話本소설의 번안작은 일반적으로 舊套소설의 작품들이 갖는 요소를 가지며 주로 舊小說의 주제를 구현하는 점에서, 開化期란 시대가 갖는 新舊文學 共存의 상황을 증명해 주는 동시에 전통계승이란 측면에서 한국소설사에 자리매김된다. 그러면서도 개화기 시대의식과 새로운 가치구현에 一助하는 등 당시의 현실인식을 담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개화기 문학의 素材의 源泉으로 작용하였으며, 비록 작품의 형식에 限하기는 하나, 前代小說과 近代小說의 접맥이 이루어져 있어, 과도기 문학으로써의 면모도 찾아보게 한다. 즉, 이들 외래문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작품들이 한국소설로 전환되어 당대 문학의 實際面貌를 보여주며, 번역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식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등, 이들 작품들은 개화기에 생산된 소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것이 이들 소설이 가지는 한국 소설사적 의미가 될 것이다.

(本文節錄、修改自韓國國立釜山大學博士論文「韓國小說의 明代話本小說 受容研究」, IV、V章之一部分<1995年8月>)